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 (2019.04.17. 기준)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은 자산의 30% 이내에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펀드 수익률 현황

펀드는 최근 3개월 +2.2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교지수는 +2.16%로 비교지수대비 0.08%pt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교지수: 종합채권 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최근 3개월

+ 2.24%

비교지수 : +2.16%
비교지수대비: +0.08%pt

최근 1년

- 0.47%

비교지수 : -0.43%
비교지수대비: -0.04%pt

최근 3년

+ 8.76%

비교지수 : +7.67%
비교지수대비: +1.09%pt

최근 5년

+ 16.55%

비교지수 : +11.38%
비교지수대비: +5.17%pt

펀드 포트폴리오 현황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주식기준] (%)

	전기전자	17.80
	금융업	13.94
	화학	11.41
	코스닥	10.18
	유통업	9.53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

	통안01930-2012-02	16.47
	산금17신이0200-0830-3	12.64
	하나은행42-02이2갭-27	10.13
	통안02060-1912-02	8.36
	하나은행42-02이2갭-22	7.59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19.01.18. ~ 2019.04.17.



CONTENTS

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공지사항

1.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 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신영증권, KB증권 외 6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3.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

- 운용 경과

-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1. 펀드의 개요

- 기본 정보
- 재산 현황

4. 투자운용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2. 수익률 현황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 현황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3. 자산 현황

- 자산구성 현황
- 자산별 구성비중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투자대상 내역 상위 10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 참고 - 펀드용어해설 >

CEO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2018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교역비중이 큰 한국이 타격을 받으며 2017년 상승분을 반납하고 상승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펀드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유동성 파티의 종언과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그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긴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내 경기도 둔화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어나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저하 등 자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가 배당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이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경제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2여년간 고수해 온 이른바 "가치주" 투자입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해 왔고 항상 결과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2018년의 투자성과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투자환경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운용 경과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3개월 수익률은 +2.24%로 비교지수 +2.16% 대비 0.08%pt 상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IS중단기지수(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주식 부문]

동 펀드의 수익률이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상회한 이유는 펀드가 보유한 가치주가 반등한 가운데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섬유·의복, 증권, 화학, 유통업 등 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펀드가 시장 대비 낮은 비중으로 보유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하며 초과 성과의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의 급락 이후 새해 들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 표명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해소되며 반등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진전 없이 끝나고 기업의 실적 우려로 소폭 하락하는 등 반등한 지수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증가의 가시성이 높은 섬유·의복 업종의 지수반등과 장기간 소외되어 있었던 유통 업종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크게 하락했던 화학, 전기전자, 증권 등 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작년 연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통신, 전기가스, 음식료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채권 부문]

올 초 파월 의장의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인내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발언을 시작으로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을 지워나간 이후, 글로벌 주가, 원자재 가격 등 위험자산 가격은 큰 조정 없이 현재까지 상승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글로벌 금리는 위험자산 선호심리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 좁은 범위에서 횡보를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ECB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각 중앙은행들이 완화된 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 발언과 금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정책들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였고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경제지표들이 경기침체를 가리키는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글로벌 금리는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는 추가 하락을 멈추고 연초 형성한 박스권 레벨의 하단까지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금리 또한 해외 금리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1분기 말 하락한 이후 4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는 분기 말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기존의 높은 보유이익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가운데, 펀드의 이자민감도를 중립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매 및 보다 매력적인 이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만기, 섹터로의 교체매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계속되어온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를 감안하여 2월 중 통안채를 매도하고 은행채를 매수하는 교체매매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과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식 부문]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의 약화, 달러 인덱스의 정체, 미-중 무역분쟁 격화 완화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한국 주식시장의 절대적, 상대적 저평가 상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관련 기대감이 사라지고 미국 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회복된 지수대에서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확대 편입 등 정책, 수급 이벤트가 있어 증시의 변동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 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저평가된 기업 중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환원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아래 성장 가능한 산업의 기업과 실적 성장이 더욱 희소해진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기업의 저가 편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속에 과거와 같은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혜 업종의 연관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의 둔화, 불확실성의 확대, 성장기회의 희소성에서도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저평가된 우량주의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채권 부문]

분기 말 큰 폭의 하락을 겪은 후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한 국내 금리가 다시 한번 하락하여 이전 저점을 하향돌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및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침체 수준까지 악화된 유로존 지표가 이번 분기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브렉시트 협상, EU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높아진다면, 연준이 펼칠 수 있는 다음 정책은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기둔화로 인해 국내 수출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이와 연관된 국내 생산, 투자지표의 악화가 심화된다면 한은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국내 금리의 하방 압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 시작된 중국의 완화적인 통화, 재정정책의 효과가 3월 지표부터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 행정부의 섣달과 작년 말 추가하락으로 1,2월 부진했던 미국의 경제지표가 3월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일시적 부정적인 요인들이 사라지고 완화적으로 돌아선 연준의 스탠스에 힘입어 개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상승 폭이 계속 확대되고 일시적 물가하락 압력 요인들이 사라지고 물가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는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와 글로벌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향후 금리의 상, 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높아지는 변동성을 방어함과 동시에 경제지표, 정치관련 뉴스 및 통화정책 담당자의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전략 실행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 펀드의 개요

기본 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50023 AR640	5등급 (낮은위험)
펀드종류	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운용기간	2019.01.18. ~ 2019.04.17.	2005.07.18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판매회사	신영증권, KB증권 외 9개사	펀드재산보관회사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은행
상품의 특징	동 펀드는 저평가된 가치주에 30% 이하, 채권 및 어음에 70% 이하를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금입니다.	하나펀드서비스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pt) ✓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19.01.17.)	당기말 (2019.04.17.)	증감률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 신탁(채권혼합)	자산 총액 (A)	42,200	39,657	-6.03
	부채 총액 (B)	86	717	732.04
	순자산총액 (C=A-B)	42,114	38,940	-7.5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40,426	36,558	-9.57
	기준가격 ^{주)} (E=C/D×1000)	1,041.77	1,065.17	2.25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 신탁(채권혼합)C형	기준가격	1,025.11	1,044.60	1.90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수익률 현황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pt)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마라톤30증권(채권혼합)	2.24	2.07	0.78	-0.47	6.35	8.76	16.55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8	0.09	-0.05	-0.04	1.77	1.09	5.17
종류(Class)별 현황							
신영마라톤30증권(채권혼합)C형	1.90	1.37	-0.25	-1.84	3.49	4.39	8.8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6	-0.61	-1.08	-1.41	-1.09	-3.28	-2.55
비교지수주)	2.16	1.98	0.83	-0.43	4.58	7.67	11.38

주)비교지수(벤치마크): KIS중단기지수(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및예금	
전기	-237	150	0	0	0	0	0	0	0	15	-74
당기	777	122	0	0	0	0	0	0	0	22	921

※ 전기: 2018.10.18.~2019.01.17. / 당기: 2019.01.18.~2019.04.17.

3.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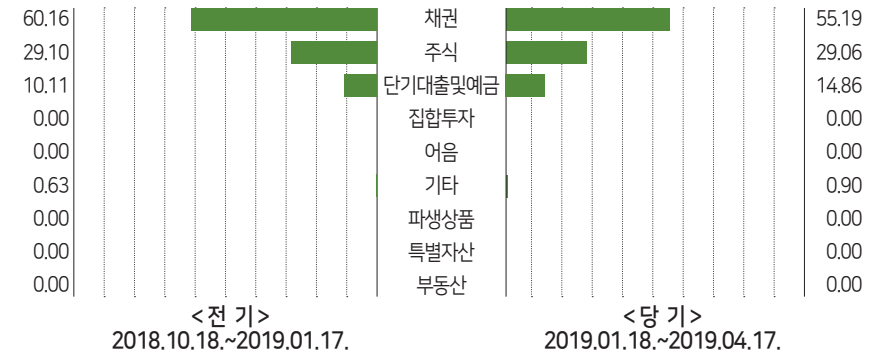
자산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기타	자산총액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및예금	
KRW	11,525	21,885	0	0	0	0	0	0	0	5,892	39,657
(0.00)	(29.06)	(55.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86)	(100.00)
합계	11,525	21,885	0	0	0	0	0	0	0	5,892	69,657

* (): 구성 비중

자산별 구성비중



※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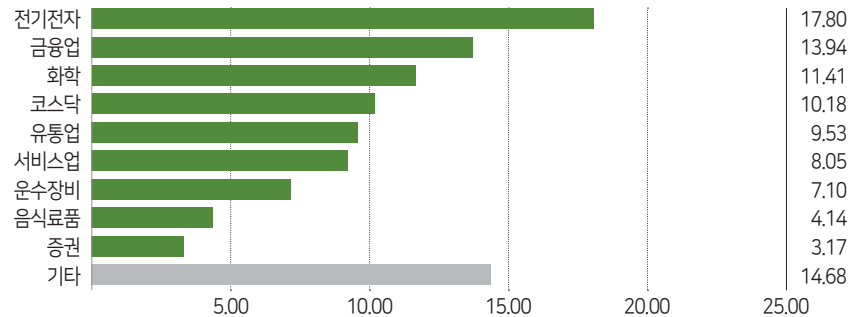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단위 :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17.80	6	서비스업	8.05
2	금융업	13.94	7	운수장비	7.10
3	화학	11.41	8	음식료품	4.14
4	코스닥	10.18	9	증권	3.17
5	유통업	9.53	10	기타	14.68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각 자산별 보유 내역-

주식

(단위 : 주, 백만원, %)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35,464	1,669	4.21		CJ ENM	1,313	291	0.73	
LS	7,741	409	1.03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채권

(단위 : 주, 백만원, %)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통안01930-2012-02	6,500	6,530	대한민국	KRW	2018.12.02	2020.12.02		N/A	16.47
산금17신이0200-0830-3	5,000	5,012	대한민국	KRW	2017.08.30	2019.08.30		AAA	12.64
하나은행42-02이2갑-27	4,000	4,016	대한민국	KRW	2019.02.27	2021.02.27		AAA	10.13
통안02060-1912-02	3,300	3,315	대한민국	KRW	2017.12.02	2019.12.02		N/A	8.36
하나은행42-02이2갑-22	3,000	3,012	대한민국	KRW	2019.02.22	2021.02.22		AAA	7.59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백만원, %)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대출	삼성증권	2019.04.17.	3,000	1.80	2019.04.18.	대한민국	KRW
REPO매수	교보증권(전문사모펀드)	2019.04.17.	2,800	1.80		대한민국	KRW

①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6,681,366	1	5,872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39	1,611,227	0	0	2110000545
윤하국	부책임운용역	1983	14	641,253	1	297,281	211100011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구분	기간	투자운용인력
책임운용역	2018.07.26. ~ 현재	심창훈
책임운용역	2005.07.18. ~ 현재	허남권
부책임운용역	2013.06.13. ~ 현재	윤하국
부책임운용역	2016.01.11. ~ 2018.07.25.	심창훈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기 2018.10.18.~2019.01.17		당기 2019.01.18.~2019.04.17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신영마라톤30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주2)}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3	0.01	3	0.01
	단순매매·중개수수료	1	0.00	1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	0.01	4	0.01
	합계	4	0.01	4	0.01
증권거래세	6	0.01	8	0.02	
신영마라톤30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C형	자산운용사	48	0.11	46	0.11
	판매회사	96	0.23	91	0.22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3	0.01	3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0	1	0.00
	보수합계	147	0.35	140	0.34
	기타비용 ^{주2)}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3	0.01	3	0.01
	단순매매·중개수수료	1	0.00	1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	0.01	4	0.01
	합계	4	0.01	4	0.01
증권거래세	6	0.01	8	0.02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사항 없음 /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사항 없음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총보수·비용비율 ^{주1)}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계(A+B)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전기	0.0078	0.0516	0.0594
	당기	0.0077	0.0481	0.0558
종류(Class)별 현황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전기	1.3823	0.0516	1.4339
	당기	1.3823	0.0482	1.4305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기 : 2018.10.18.~2019.01.17. / 당기 : 2019.01.18.~2019.04.17.

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단위 : 백만원, %)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22,639	1,112	90,083	2,635	21.78	88.33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

2018.07.18. ~ 2018.10.17.	2018.10.18. ~ 2019.01.17.	2019.01.18. ~ 2019.04.17.
13.12	16.86	21.78

펀드용어해설 ✓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 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